

예술읽어주기를 권하는 문화소비에 대한 단상



“컴퓨터는 무용지물이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답뿐이니까.”
이렇게 뼈있는 말을 한 이는 화가 파블로 피카소다. 예술은 답이 없다, 또는 답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이 예술이라는 말로 들린다. 작업실에 처박혀 홀로 자신의 작품과 마주해 신음하는 예술가의 고독이 느껴진다. 컴퓨터 자판만 두드리면 뭐든 알 수 있다고 믿는 오늘 세대에게 피카소는 기계의 목소리 대신 인간의 목소리를 이야기한다. 문제의 본질은 답이 아니라고. 오히려 물음이라고. 그렇다면 ‘예술 읽어주는 시대’의 빛과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답이라 생각하고 어떤 물음을 던지고 있을까?

프로로그:

답부터 구하려는

사람들



예술을 알고 느끼고 판단하는 일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일화는 많다. 한 피아노 명인의 예 또 한 의미심장하다. 이 피아노 대가는 스무 명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참가한 콩쿠르의 심사를 맡았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등수를 내야 했다. 경연이 끝난 뒤 그의 심사표를 보니 두 명에게는 만점을, 나머지 열여덟 명에게는 0점을 주었다. 콩쿠르 주최측이 항의하자 그 마에스트로는 “연주란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일 뿐이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할 수 있다’와 ‘(그는) 할 수 없다’를 가르는 기준을 어찌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묻는 것이 더 옳을지 모른다. 희망에 차 예술의 길에 들어섰던 그 많은 예술가 지망생은 다 어디로 갔는가, 라고

게다가 예술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어록을 들춰보자.

“전위예술은 규칙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란 힘들다.

어느 시대건 예술가는 자동차로 달린다면 대중은 버스로 가는 속도다.”

이런 말 끝에 백남준의 명언 ‘예술은 고등사기’가 나왔다. 피카소 시대(1881-1973)와 백남준 시대(1932-2006)를 짝꿍으로 넘어간다. <뉴욕커>의 기자 말마따나 “포스트 모던 예술(post-modernist art)은 무엇보다도 관중을 넘어선 예술(post-audience art)”로 보인다.

이런 시대에 피카소가 그렇게 경멸했던 컴퓨터 풍 답을 알려주겠다는 이들이 늘어나는 건 왜 일까.

그리고 해설은

달아나는 대중을

잡았다

‘친절한 금(난)새 씨’가 음악계 패션이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가 “너나 잘 하세요” 이 한마디로 뒀다면 금난새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10여 년째 인기몰이 중이다. 지휘봉 대신 마이크를 든 그에게 언론은 ‘클래식의 전도사’란 별명을 붙여줬다. 손보다 입이 더 바쁜 그의 말을 들어보자. 9월 경기필하모닉 예술 감독으로 취임한 금난새 감독이 경기문화재단 당 소식지 <예술과 만남> 10월호 인터뷰에서 밝힌 클래식 대중화론이다.



“한 달에 한두 차례 연주회를 열면서 콘서트홀에서 오지 않는 관객을 기만히 기다리는 방식은 안 됩니다. 클래식에 미처 접할 기회가 없던 관객을 위해 직접 찾아가 이해하기 쉬운 해설도 곁들이면서 클래식 청중을 창출해내야죠.”

관객과 청중을 고객으로 바꾸면 더 그럴듯한 이 말에서는 예술산업의 역군 냄새가 풍긴다. 음악보다 해설을 들어야 하는 음악회라면 주객전도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다. 물론 음악의 거대한 숲 들머리에 선 초심자의 두려움을 덜 적절한 조언 몇 마디는 필요하다. 하지만 말로 고정되는 음악, 일종의 정답을 알려주는 음악은 미래의 음악 애호가를 힘빠지게 만든다. “아무도 똑같은 강을 두 번 건너지는 못한다”고 헤라클레이토스도 그 옛날부터 말하지 않았던가. 같은 지휘자라 해도 금난새가 해설하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정명훈이 해석하는 ‘운명’ 교향곡은 다르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뉴욕 필과 이끌었던 ‘청소년 음악회’가 클래식 대중화의 모범이 된 것은 사실이다. ‘친절한 금새씨’도 스스로 번스타인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두 무대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과 ‘수다’는 다르다. 시장 점유율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라면 금난새 감독의 상대는 브런치 콘서트가 아닐까. 청소년과 주부가 한국 음악시장의 블루오션이

된 셈이다. 예술은 이제 철저히 사고 팔며 계산하고 흥정하는 상품이 돼버렸다.

수다스런 음악회라 해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예술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는 청중의 소외감을 풀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평생 음악회장 문 앞에 갈 일이 없는 이를 무대 앞으로 모이게 하는 힘을 그나마 이런 곳 아니면 어디서 찾겠느냐는 반문은 일리 있다. 방학 숙제용이건, 동창회 대용품이건 안 듣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경험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럼 왜 해설이 있는 연극은 없는 것일까. 대사와 행동이 있는 연극은 해설이 필요 없어서? 숙제가 없으니까, 또는 동창회를 하기에는 너무 작고 남루한 극장이라서? 친만에, 연극도 제대로 감상하려면 상당히 깊은 얹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간단하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연극은 유사 이래 가장 가난한 예술 형식이었다. 또한 자본주의 시대, 세계화 시대에 가장 역류하는 예술 정신이다. 단, 뮤지컬 빼고.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는 “멀리서 보는 것과, 직접 그곳에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예술가에게 모든 예술 문제는 순전히 개인적이라고 한다. 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다. 감상도 마찬가지다. 모든 예술 체험은 제 속에서 일어나는 몹시 개별적인 느낌이다. 해설은 해설자의 것. 남이 본 것은 멀리서 보는 것과 같다. 직접 제 귀로, 제 눈으로, 제 마음으로, 제 피로 보고 들어야 직접 가봤다고 할 수 있다. 단 한 소절을 들었다 해도 남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서 좋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왜 이 음악을 좋아하는가’를 느낄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교육 해설이 필요하다. 장바닥 수다말고.

읽어주는

남녀들의

나의 체험,

나의 얘기



책 읽어주는 여자,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 그림 읽어주는 여자, 옛글 읽어주는 남자... 한국 독서시장에 ‘읽어주는’ 사람들 풍년이다. 한국에 갑자기 난독증 환자가 늘어난 것일까. 읽든 읽어주겠다고 난리다. 무성영화 시대의 변사가 부활한 듯하다. 출판계의 ‘읽어주는’ 기획 열풍은 일종의 오락산업 같다. 아니면 이웃돕기 사업일 수도 있겠다. 맹도전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듯, ‘읽어주는’ 사람은 예술의 문맹자를 이끌 수 있을까.

W읽어주겠다고 나서는 남녀는 대체로 잘났다. 예술가도 인물과 외모가 실력이나 작품 질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추세이긴 하다. 이처럼 읽어주는 사람에게는 한 술 더 떠 패션모델 같은 미모가 더 큰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 그 예쁜 눈이 보고, 그 잘생긴 입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답이다. 잘난 것이 죄는 아니겠지만 한 출판사가 기획한 ‘읽어주는’ 예술 시리즈의 주인공은 선남선녀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한젼마,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의 김학민 모두 인물이 받쳐주는 필자다. 책 내용에 앞서 지은이 이목구비에 혹하게 되는 것이 독자 사정이다. 한젼마는 아예 ‘그림 DJ’란 별명을 얻었다.

모양새가 이리하니 더 잘난 생김새, 더 튀는 스타를 ‘읽어주는’ 남녀로 모시는 일이 늘어난다. 《아티스트 낸시랭의 비키니 입은 현대미술》이 그 대표 사례다.

“예술도 비키니처럼 가벼웠으면 좋겠다”고 나선 이 언니, 어느 일간지 서평 표현을 따르자면 “시쳇말로 ‘대략난감’이다.” 팝 아티스트로서 ‘섹시! 큐티! 키티!’를 내세운 건 좋은데 미술 해설서까지 도발로 채운 건 좀 과하지 싶다. 낸시랭은 미술이 한바탕 ‘쌩쑈’라고 주장한다. 책 홍보자료는 아예 “요즘 출판가의 유행에 따르자면 ‘쇼로 보는 서양 미술사’ 짬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쇼’를 ‘돈’ 또는 ‘달러’로 바꿔도 큰 무리는 없겠다. 낸시랭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에. “미술은 인정투쟁 혹은 욕망이다. 어차피 달러가 세상을 지배했다면 나는 달러를 지배하겠다. 아이 러브 달러, 쪽!”

책 내서 돈 벌겠다는 미디어상업주의 시대의 흐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서양미술사까지 오도하는 용기는 정말 대략난감이다. 솔직하다, 가식 없다고 추어주기에는 너무 벗었다. ‘읽어주는’ 예술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의 체험, 나의 얘기’라 해도 땅에 발 딛지 않은 풍선 같은 태도는 위험해 보인다. 그 자신이 팽 터질 수 있으므로.

길라잡이 없이는

감상도 없다?

이렇게 해서 예술은 멋진 해설자의 말씀을 따라 문예적 성격을 띠게 된다. 대중이 즐기는 건 예술 자체가 아니라 해설자의 아름다운 몸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설명을 알아듣는 행위가 예술을 이해하는 행위가 됐다. 우리가 귀 닳게 들어온 그 한마디, ‘보는 것이 곧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곧 보는 것’이 돼버렸다. 이론이 곧 미술이요, 음악이 됐다. 뭔가를 알아야만



감상할 수 있는 이론의 시대, 이야기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예술의 문예화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내칠 수는 없다. 그 한 예가 시네리터리시(cineleracy)로, 영화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미지 문명 시대에 영화(영상)를 읽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문맹과 같기 때문이다. 영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해졌다. 일찍이 영화 산업이 발전한 미국과 유럽이 70년대부터 공교육에서 영화 수업을 시작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올바른 비판 잣대로 영화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천만 명을 불러들이는 대박 영화, 주류 영화 이외에 다양한 비주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아트리터리시(artliteracy)나 뮤직리터리시(musicliteracy)가 과연 시네리터리시와 같은 형태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다. 영화는싼 값에 누구나 접근 가능한 대중문화의 대표 선수다.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비디오나 DVD 같은 개인 접촉 수단부터 하디못해 텔레비전 주말극장까지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이를 주제로 제 의견을 낼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한때 영화 ‘읽어주는’ 사람이 넘쳐났던 까닭이다. 영화평론가나 문화비평가는 물론 철학자·법학자·소설가·인문학자 등 영화 읽어주는 책은 아무나 펴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 저술 주제로 꼽혔다. 오죽하면 ‘개나 소나 영화평론 한다’는 말이 나왔을까.

미술과 음악은 다르다. 오리지널 그림을 보려면 화랑이나 미술관에 가야 하고, 실황 연주를 들으려면 음악회에 가야 한다. 복제 그림을 보거나 음반 음악을 듣고 공감의 대화를 나누기는 뭣하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절대 관람객이나 청중 수도 부족하다. 미술과 음악은 영화에 비해 꽤 귀족 놀음인 셈이다. 이 분야 필자가 영화보다 소수인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정보는 한정돼 있다. 제 취향을 가늠하지 못하는 대중은 매스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기사를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방학이면 터지는 이른바 ‘블록 버스터’ 전시회에 관람객이 줄을 서는 큰 요인이 언론 보도다. 파블로 피카소니 마르크 샤갈이니, ‘밀레와 인상파’니 ‘마티스와 야수파’니 하는 식으로 한국 대중에게 낯익은 인기 화가를 불러낸 대부분의 ‘블록 버스터’ 전시가 신문사와 방송사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독일 언론인 알렉산더 폰 쇤부르크가 일찌감치 갈파했듯 우리는 “문화적인 이벤트를 진실로 원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대화에 한몫 끼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불필요한 것들을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애쓰는가”를 생각해볼 일이다. 일반 전시회나 음악회보다 몇 배 비싼 입장료를 치르고도 ‘남들이 손꼽는 그것, 나 그거 봤어, 나 그거 들었어’ 한마디를 위

해 달려가는 예술은 인기 상품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먼저 건전하게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매스컴에서 현재 무엇을 선전하는지 모르는 일이 가장 이상적이다.”

지적 허영을 넘어선

아트리터러시를 위하여

시류를 따라가는 문화 이벤트 비용을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문화소비를 좌지우지하는 군중 심리를 허겁지겁 좇지 않는 일일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제대로 ‘읽어주는’ 책이다. 전문지식으로 자신을 무장할 수 있도록 진실로 도와주는 책이다.

한국 독자의 아트리터러시를 위해 열심히 글을 써온 이로는 단연 이주헌을 꼽을 수 있다. 미술 읽어주는 남자로 스무 해 가까이 공력을 쌓아 왔다.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언론사 미술 담당 기자를 지낸 뒤 화랑에서 큐레이터와 관장 일을 맡았으며 미술평론가로 활동했다. 남이 따를 수 없는 이런 단단하고 다채로운 경력을 바탕으로 그가 써내는 책은 미술을 나의 체험으로 만들려는 이에게 비교적 건전한 길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읽어주는 미술 이야기는 조미료 남용 없이 원 재료 맛을 살리는 일품요리에 비유할 수 있다. 미술에 관한 글쓰기를 자신의 천직이라고 보는 그의 행복한 그림 읽기 한 대목을 들여다보자.

“그림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매우 사적인 과정이다. (...) 분명한 것은 인생은 무수한 가변성 위에 놓여 있고 그 선택은 개인의 몫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지키는 것도 개인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각가) 로댕이 (연인이자 모델인) 로즈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으로 남겨놓은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로즈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의 비참한 인생 역정에 묻혀 영원히 잊혀졌을지도 모르니까.”

로댕의 연인으로 흔히 거론되는 천재적인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 대신 비천한 하녀 마리 로즈 뵈레를 불러낸 글쓴이의 마음은 따뜻하다. 아울러 기왕의 ‘읽어주는’ 미술책이 지닌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만의 처방을 내린다.

“미술에 대해 한참 연애 감정에 빠져드는 이들에게 기왕의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은 오히려 역기능을 해온



측면이 크다. 그래서 글에 따라서는 직업적인 관심을 떠나 자연인으로서 나 자신과 미술과의 만남, 그리고 미술과의 교제과정 같은 것을 다소간 없게 되었다. 미술과의 사귄이 얼마나 사적인 경험과 우연한 사건에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미술 동네에서 이주헌과 나란히 인정받고 있는 또 한 명의 이야기꾼은 미술사가 노성두다. 이씨와 비교해 후발주자인 그의 강점은 정통 미술사가로서의 아카데미즘이다. 역사적 사실과 문헌 연구에 강한 만큼 그림의 배경과 해박한 지식이 글쓰기에 짙은 양념으로 배어 있다. 독일 쾰른대에서 미술사, 고고학, 이탈리아 어문학을 전공해서 각종 원전 자료에서 직접 인용하는 미술사 정보가 풍부하다. 말하자면 지적 허영을 채워주는 맛이 상큼하면서도 구수하다는 것. 바로크 시대의 거장 카라바조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설명하는 한 대목이 딱 그렇다.

“묵수였던 요셉은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특히 예민해진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 같다. 혹시 알고도 그랬다면 어지간히 간 큰 남자였을 것이다. 그날 밤 타지에서 한뼉잠을 자면서 구유에다 아기를 낳고도 나중에 신세한탄 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마리아도 무척 무던한 성격이었나 보다.”

올 5월에 출간된 《노성두 이주헌의 명화 읽기》는 최근 몇 년 새 부쩍 늘어난 미술 교양서 출판의 한 매듭이라 할 수 있다. 이름만 보고도 책을 집어들 팬을 거느린 두 남자를 묶었으니 출판사는 시너지 효과요, 독자는 일석이조의 기획이다. 문제는 두 사람의 역할이 딱 여기까지라는 안타까움이다. 대중의 언어로 미술을 이야기해 박수 받은 이들이 한국 출판시장의 ‘미술 에세이’ 유행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싶다. 작품을 만든 미술가의 마음까지 꿰뚫는 글, 미술에 대한 탐욕의 죄를 경계한 글 등등이 새로운 미술 읽어주는 책의 덕목이 될 것이다.

은행가들이 모이면

예술을 논하고,

예술가들이 모이면

돈을 논한다

“은행가들이 모이면 예술을 논하고, 예술가들이 모이면 돈을 논한다”고 갈파한 이는 아이rlen

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다. 독설가로 유명한 그다운 일같이다. 요즈음 한국 사회만큼 이 말이 맞아떨어지는 곳도 없어 보인다. 예술가는 ‘돈, 돈’ 돈 노래를 부르고, 은행가(또는 돈 있는 유한계급)는 ‘예술 소양’을 기르기에 열성이다.

예술가는 왜 돈 노래를 부르는가. 돈이 작품에 순위를 매기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비싸게 팔려야 좋은 작가가 되는 시스템의 부조리다. 우선 각종 예술기금을 확보하고 잘 나가는 화랑이나 음악회장에서 초대전과 음악회를 열어야 하며 영향력 있는 매체에 소개되어야 한다. 예술 읽어주는 사람은 이래서 중요하다. 잘 읽어주면 예술가는 예술가로 계속 남아 있으려 발버둥치는 지옥에서 좀더 건널 만해진다.

유한계급은 왜 예술을 익히려 기를 쓰는가. 좋은 작품을 알아보려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다. ‘안목’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다. 고상한 심미안을 얻는 일은 명예와 품위에 연결된다. 이들을 위해서도 예술 읽어주는 사람은 중요하다. 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

피카소의 말로 돌아가 보면, 한국 예술계의 소통과 이해 사이에 얽힌 문제 한 가지는 간단히 풀린다. 흥미로운 답을 찾는 사람은 흥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관심을 갖는 것에 집중해 자꾸 묻고 대답을 찾아 헤매는 이다. 예술은 한없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 자신을 던져 넣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이 길고 지루한 길에서 예술을 발견하도록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것이 예술가와 예술가 아닌 자 사이에 벌어지는 교감일 터이다.

‘줄탁동기(啐啄同機)’란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먼저 스스로 깨기 위해 부리로 알을 쪼아야 한다. 이 소리를 듣고 알을 품던 어미닭이 함께 알을 쪼니 안팎에서 쪼는 격이 된다. 새끼와 어미가 동시에 알을 쪼지만, 어미는 다만 알을 깨고 나오는 데 작은 도움만 줄 뿐, 결국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새끼 자신이다. 예술의 깨달음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예술을 해설하고 읽어주는 사람에게도 맞춤형 교훈일 듯싶다.

히포크라테스는 말했다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기회는 달아나기 쉽고, 경험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며, 판단은 어렵기만 하다”고, 21세기에 이렇게 말해보는 것을 어떨까.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고, 최고 수준으로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그러하니 우리 함께 우아하게 예술을 맛보고 즐기는 방법 찾기를 포기하지 말지어다.



글쓴이 | 정재숙

1961년 태어났으며,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성신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를 수료했다. <서울경제신문> 문화부와 <한겨레신문> 문화부를 거쳐 현재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